

红色经典系列
중국당대 장편소설 소장본

김해설원

곡과 저
중조·중한번역센터 역

림해설원

소설은 해방전쟁초기에 동북지구
목단강일대의 심산밀림속에서 벌어
졌던 가렬처절한 토비속청전투를 묘
사하고있다. 소설은 우리 군 소부대 전
사들의 영웅적형상을 부각하였고 해방
전쟁에서 불후의 공훈을 세운 인민군대
의 용감무쌍한 투쟁정신을 노래하였다.

.....

양자영은 해벌쪽 웃었다.

“셋째나으리님의 룡심생신인데 웅당 그
렇게 차려야 합지요. 저는 오늘 온 위호
산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서 조금도 어
두운 곳이 없게 하렵니다. 제가 광솔불
360개를 마련한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길한 말로 말하면 이건 ‘산광보조에 통
천명량(山光普照, 通天明亮)’ 이라는겁니다.
앞으로 셋째나으리님이 상장으로 발탁되
고 만년장수하라는걸 상징한겁니다.”

독수리는 양자영이 그럴듯하게 둘러
치는 의미심장한 말에 마음이 흡족해서
껄껄 웃으며 염소수염을 연방 쓸어만졌다.

“아흡제, 자넨 과연 부관출신답군.
숨씨가 괜찮네 그려, 숨씨가 괜찮아! 이
렇게 차려본적은 여직 없었는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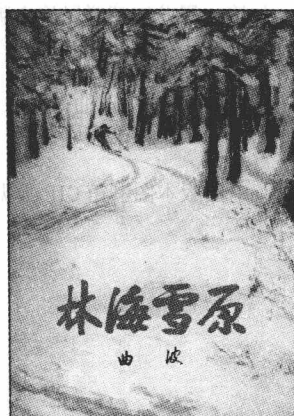
ISBN 978-7-5389-1496-2



9 787538 914962 >

定价: 42.00元

红色经典系列
중국당대 장편소설 소장본



림해설원

곡파 저
중조·중한번역센터 역



홍콩
조선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林海雪原：朝鲜文 / 曲波著；中朝、中韩翻译中心译. —哈尔滨：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2008. 7
ISBN 978-7-5389-1496-2

I. 林… II. ①曲…②中… III. 长篇小说—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7.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8）第105018号

书 名/ 林海雪原
著 者/ 曲 波
译 者/ 中朝、中韩翻译中心
责任编辑/ 朱东律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咸成镐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1-57364224
电子信箱/ hcxmz@126.com
印 刷/ 牡丹江新闻传媒印务有限公司
开 本/ 640mm×960mm 1/16
印 张/ 41.5
字 数/ 703千字
版 次/ 2009年10月第1版
印 次/ 2009年10月第1次印刷
书 号/ ISBN 978-7-5389-1496-2（民文）
定 价/ 42.00元

출판설명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어서부터 1966년까지 중국의 장편소설 창작과 출판은 하나의 고조를 이루었다. 이 십여년간에 많은 작품이 창작되었고 그 중 수십편의 인기작품들은 아주 큰 영향력을 갖고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런 작품들은 사실주의 창작원칙을 견지하면서 뜨거운 열정과 질박한 표현수법으로 토지혁명전쟁, 항일전쟁, 해방전쟁과 사회주의건설 등 부동한 력사시기 중국인민의 간거하고 탁월한 분투의 과정과 적극적이고도 진취적인 정신적풍모를 가송했으며 그 시기 중국 장편소설문학의 최고 성과를 대표하였고 아울러 중국당대문학사상 아주 중요한 한자리를 매김하였다.

이 시기 중국당대 장편소설의 성과를 대내외에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본사에서는 “중국당대 장편소설소장본”시리즈 완역본을 출판하게 되었다.

첫단계 작업으로 “붉은경전소설”중 10부를 완역, 출판한다. “붉은경전소설”이란 모택동주석의 “연안문예좌담회에서 한 연설”정신을 창작지침으로 삼고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진행한 사회정치운동과 보통 공농병생활을 전형화하여 반영한 소설문학을 말한다. 이런 소설들은 영웅서사시적인 거대한 화폭으로 당시의 사회생활을 폭넓게 반영하고있는바 애국주의교육의 좋은 소재로 되고있으며 문학사와 혁명사의 완정성을 기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번 “붉은경전소설” 10부는 인민문학출판사에서 출판한 “중국당대장편소설소장본”을 번역한것이다.

번역, 출판과정중 각고의 노력으로 완미함을 추구하였지만 이런저런 부족점을 피면할수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전문가와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적을 바라마지않는다.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9년 10월

차례

1. 피맺힌 원한/1
2. 허몽둥이와 “나비홀리개”/23
3. 명령을 받고/36
4. 양자영이 피로 땀쟁이와 사귀다/52
5. 류훈창이 조점일을 사로잡다/76
6. 한밤중의 심문/87
7. 버섯로인이 들려준 내두산 신화/100
8. 골짜기를 날아건너 비적소굴을 치다/115
9. 백여의 마음/134
10. 눈속에서 종적을 따라/147
11. 도사의 오산/165
12. “털 한모습”/180
13. 소부대는 세길로/198
14. 자피거우의 자매차/212
15. 양자영의 선물/229
16. 스키를 타고 눈덮인 산밭을 넘나들다/249
17. 기회를 빌어 숨씨를 보이다/262
18. 이도강다리목에서의 대격전/284
19. 양자영의 주육병/305
20. 위험한 적수 땀쟁이와 혀로 싸우다/319
21. 소부대가 백계연에 참가하다/342
22. 흰비둘기 밤도와 치료하다/351
23. 눈고장에서 싹튼 검파의 사랑/364
24. 란초가가 급보를 전하다/383
25. 적의 계책을 역이용하다/397
26. 도사를 체포하다/415
27. 젊은 사냥꾼이 벼랑바위로 인도하다/434
28. 자객과 역적/456

2 림해설원

- 29. 범을 산에서 끌어내다/479
- 30. 소굴을 치고 꼬리를 자르다/506
- 31. 마구간을 폭파하다/527
- 32. 림해설원에서의 선회작전/540
- 33. 구 원/556
- 34. 지미르초원/571
- 35. “눈우의 협객”/588
- 36. 산삼할아버지의 사방대에 대한 이야기/607
- 37. 리리궁전앞에서의 격전/626
- 38. 철의 흐름/645
- 《림해설원》에 관하여/647

1. 피맺힌 원한

마가울의 이른새벽인데다 서리까지 하얗게 내려덮여 날씨는 뼈를 쭈시는것 같이 춥고 쌀쌀하였다.

류량한 나팔소리가 하늘높이 메아리치며 밝아오는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자 훈련장 여기저기서 호각소리, 구령소리, 발걸음소리, 창격훈련을 하며 웨치는 소리가 한데 뒤엉켜 힘차게 울려왔다. 혼잡을 이룬것 같으면서도 질서정연하여 자못 장엄하고 범접못할 위엄이 풍기였다.

탄참모장 검파는 군복차림을 산뜻하게 하고 허리에 두른 밤색 혁띠에 아담한 권총을 차고있었는데 그것이 이 스물두살난 젊은 군관을 한결 오돌차고 준수해보이게 했다.

그는 1명 훈련장을 향해 급히 걸어가고있었다. 그가 훈련장 울타리안에 흙으로 한메타가량 쌓아올린 단우에 올라서자 직일련장이 “차렷!” 하고 구령을 쳤다. 파도치듯 들끓고있던 훈련장안은 삽시에 귀죽은듯 고요해졌다. 전사들이 엄숙한 자세로 그 자리에 멈춰선것이였다.

직일련장이 흙으로 쌓은 단앞에 달려가 검파에게 인원수며 훈련과목을 보고하고나서 몸을 돌려 “하던 훈련을 계속할것!” 하고 다시 명령을 내렸다. 직일련장의 이 명령에 따라 훈련장안은 또다시 긴장하게 들끓기 시작하였다.

검파는 영웅패장 류훈창이 창격훈련을 하고있는 모습을 세심히 검열하였다. 참모장의 앞인지라 전사들은 부쩍 사기들이 올라 땀을 흠뻑 흘리며 온 정력을 훈련에 쏟아붓고있었다. 주위의 공기마저 그들의 동작에 말려들어 회오리치는것 같았다.

반시간쯤 지나자 동남쪽 산마루에 붉은 해가 얼굴을 빠끔히 내밀었다. 탄부의 직일관인 통신련락참모 진경이 헐떡거리며 검파앞으로 달려왔다.

“보고!”

그는 거수경례를 붙였다.

“참모장동지! 5시 37분에 전부사령원동지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곧 우리 탄의 한개 영과 기병련을 잡아 장구류를 가뜰히 하고 출격태세를 갖추고있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상세한 정황을 적은 서면명령은 인츰 도착하게 될거라고 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즉시 행동을 개시하되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검파는 이런 정황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경에게 말하였다.

“동무는 곧 가서 탄장동지와 정치위원동지에게도 알리시오. 나는 동무가 전한대로 먼저 병력부터 동원하겠소.”

“알았습니다.”

진경은 대답하고나서 절도있게 몸을 돌려 훈련장밖으로 달려나갔다.

검파는 곁에 서있는 신호장에게 명령을 내렸다.

“신호하시오. 기병련은 지체없이 모여 1영 훈련장에 올것! 1영은 전원이 이 훈련장에 집합하여 전투준비를 갖추면서 출발명령을 기다릴것! 그다음 1영 영장과 교도원, 기병련 련장과 지도원은 영부에 가서 명령을 받을것!”

신호장은 명령대로 일일이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그에 화답하는 나팔소리가 멀고 가까운 곳에서, 사면팔방에서 꼬리를 물고 련달아 올랐다.

신호장은 여기저기서 올려오는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인채 묵묵히 세고 있었다.

“1련... 2련... 기병련...”

나팔소리가 몇자 신호장은 검파에게 보고하였다.

“보고, 203번 동지, 각 부대들에서 명령을 다 받았습니다.”

검파는 량미간을 찌프리고있었다. 그는 이 돌발적인 정황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던것이다. 그는 이 사태의 내막을 빨리 알아보기 위하여 마을동쪽 사령부로 통하는 큰 다리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걸어가면서도 노상 생각에 잠겨있었다.

목단장지구에 있던 수만명의 국민당군대는 반년전에 이미 괴멸되었다. 남은것들은 한줌도 못되는 비적두목들뿐이다. 명목상으로는 다섯개 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두머리들만 있고 졸병이 없는 빈 허울에 지나지 않는것들

이다. 이런 놈들마저 반년전에 이미 자취를 감추어버려 지금은 그 향방조차 모르고있지 않는가!

중심구역들에서는 토지개혁을 마지막 고비에서 다그치고있고 토지개혁을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한 마을들에서는 한창 “선밥을 익혀”가면서 계속 심화시켜나가고있으며 아직 토지개혁에 착수하지 못한 마을들에서는 토지개혁을 시작하려 하고있다.

농민들은 쌀독을 채우게 되고 땅이 차례지자 남녀로소 할것없이 끝없는 환희에 휩싸여 가는 곳마다에서 “만년 묵은 고목에 꽃이 피고 천년 메말랐던 가지에 움이 트네”라는 노래를 흥얼거리고있다.

후방은 확실히 평화로운 분위기에 휩싸여있다. 그래서 부대들에서는 지금 긴장하게 훈련을 다그쳐 아무때건 최전선에 나아가 장개석의 주력부대를 쳐부실 만단의 준비를 갖추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검파에게는 정황이 너무도 돌발적인것 같이 느껴졌다. 하지만 싸움을 천적으로 알고있는 그의 머리에서는 본능적으로 마땅히 소멸하여야 했으나 아직까지 소멸하지 못한 놈들을 하나하나 채쳐보기 시작하였다.

(국민당특무놈들, 괴뢰만주국 경찰들과 관리놈들, 대지주놈들과 상습 토비놈들, 이런 죄많은 놈팽이들이 거느리고있던 부대는 이미 소멸되었지만 놈들 자신은 아직 살아 숨쉬고있다. 놈들은 자기들의 멸망을 달가와하지 않을것이며 날이 갈수록 발악하면서 세상이 뒤집히고 새로 힘을 모아 덮쳐들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있을것이 아닌가!)

“그렇다. 바로 이래서다!”

검파는 자기 생각을 몇번 되풀이해보고나서 자신있게 판단을 내렸다. 그는 다리목에 서서 동쪽언덕을 바라보면서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비적무리들을 깨끗이 쓸어버리지 않는다면 후환은 끝이 없을것이다!”

언덕쪽에서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고있었다. 먼지가 이는 맨 앞장에서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이쪽으로 나는듯이 달려오고있었다.

령리하고 재빠른 꼬마경위병 고파가 마주 달려나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련락병동무! 203번 동지가 여기 있소. 말에서 내리오!”

두 련락병은 말고삐를 나꾸채더니 말에서 뛰어내렸다.

한 사람은 말을 끌고오고 다른 한 사람은 곧장 검파앞으로 급히 달려

와 거수경례를 붙이고 명령서를 내놓는 것이었다.

겉봉투를 찢고 급히 명령서를 읽어내려가던 검파의 얼굴에 긴장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고개를 돌리더니 탄부를 향해 총총히 걸어갔다.

탄부의 북쪽바람벽에는 큼직한 군용지도가 걸려있었는데 그앞에 쳐놓은 가림막은 어느새 걷혀있었다.

왕탄장과 류정치위원 그리고 명령을 받고온 1명과 기병련 군관들이 새 명령을 기다리면서 적정을 판단하고있었다.

“명령서가 왔습니다.”

검파가 문안에 들어서기 바쁘게 초조한 음성으로 한마디 하자 군관들이 곧 그를 에워쌌다. 검파가 명령서를 왕탄장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왕탄장이 고개를 약간 끄덕여보이며 “동무가 읽소!” 하고 말하였다.

검파가 재빨리 명령서를 펼쳐들자 사람들의 눈길이 명령서에 쏠렸다.

명령: 깊은 산속에 웅크리고있던 비적두목이 200여명의 졸개를 모아가지고 어제밤(12일) 24시에 삼람참에 기여들어 살인과 방화를 감행하였다. 국현장이 인솔한 토지개혁공작대도 함께 포위되었다.

동무네 탄에서는 즉시 한개 영과 기병련을 파견하여 기습하되 기병을 먼저 보내어 토비놈들이 산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퇴로를 차단하고 퇴각하는 비적무리들을 모조리 소멸해버릴것을 명령한다.

검파는 “국현장이... 포위되었다”는 대목을 읽을 때 어찌나 불안하고 초조했던지 목소리마저 약간 떨렸다. 자리에 앉아있던 동지들은 모두가 불안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고 류정치위원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탄장동지, 한순간도 지체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파는 마음을 진정하려고 했지만 끝내 근심과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말았다.

“웁소! 곧 출발하시오.”

왕탄장이 결단성있게 명령하였다.

“탄장동지, 기병련을 거느리고 가서 포위망을 헤치고 놈들의 퇴로를 차단할 임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검파는 몹시 조급해하고있었다.

왕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친절하면서도 관심어린 눈길을 검파에게 보내었다.

“애당초 이렇게 결정해서는 안되지만 오늘은...”

판장은 동의를 구하는듯한 눈길을 류정치위원에게 돌리었다. 류정치위원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오늘은 이렇게 결정짓지 않을수 없게 되었소. 어서 떠나시오!”

“그럼 가도 좋습니까?”

검파는 더욱 긴장한 표정을 짓고 물었다.

판장이 고개를 끄덕여보이자 검파는 급히 문밖에 나섰다.

류정치위원이 뒤따라나와 바래주면서 당부했다.

“검파동무, 국현장은 동무의 누님인데 만일 그의 신변에 그 어떤 불행이 닥쳤다고 하더라도 침착성을 잃어서는 안되겠소.”

“마음을 놓으십시오, 정치위원동지!”

검파는 류정치위원의 손을 힘있게 잡고 말을 이었다.

“저의 리성을 믿어주십시오...”

문밖에서는 경위병 고파가 벌써 말을 준비해놓고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이것은 그의 몸에 뻘 오랜 습관이였다. 참모장이 임무를 받을 때마다 그는 사전에 필요한 모든것들을 빈틈없이 갖추어놓곤 했다. 나이는 열여덟 살에 불과했지만 그는 수백차례의 전투를 겪어온 로전사였다. 그래서 모두들 그를 “꼬마 로전사”라고 불렀다.

검파는 나눈듯 말안장에 뛰어올라 1명 훈련장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 기병련장에게 손을 흔들자 기병련장이 우렁찬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승마... 전진!”

련장의 명령에 따라 요란한 말발굽소리가 일시에 일어났다.

온 기병련은 마치 산골짜기에서 쏟아져내리는 물결마냥 서남쪽 산길을 향해 흘러갔다. 200여명의 기병련 전사들이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삼삼한 참으로 내달리고있었던것이다.

검파의 마음은 들뛰는 말처럼 진정할줄 모르고 마냥 앞으로만 달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벌어지게 될 복수전을 생각해보기도 하고 전투에서 거두게 될 승리를 그려보기도 하였다. 그러던 그는 문득 가슴이 섬쩍해났다. 어려서부터 자기를 애지중지 길러준 국현장 생각이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짝 끼쳤던것이다.

(정말 무슨 불행이라도 당하지 않았을가? 그럴수 없어! 누님이 얼마나 약삭바른 사람이라구! 항일전쟁시기 왜놈들과 민족반역자놈들의 총칼밑에서도 여러차례나 위험한 고비를 넘긴 그가 아닌가! 한번은 지어 아무런 희망도 가질수 없는 처지에서 날쌔게 군중들과 함께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았던가!)

그는 머리속에 떠오르는 무시무시한 환상을 쫓아버리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또다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광경이 지못게 갈마드는것이였다.

(누님은 반년동안이나 걱정이 없었기때문에 경각성없이 지내지 않았을가? 만일 그렇게 지내었다면 무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겠는데 어떻게 비적무리들의 불의의 습격을 막아낼수 있었겠는가?)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그는 몸서리가 쳐졌다. 그러나 그는 달리 생각해보기도 했다.

(적아가 맞서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그 어떤 요행수도 바라서는 안된다. 오직 슬기와 용맹으로 그 위험을 가지고 승리해야만 하는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의 가슴은 더욱 세차게 끓어번졌다. 그는 말을 질풍같이 몰아대었다.

(빨리!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전투를 벌이자! 시간을 쟁취해야만 승리할수 있고 누님과 공작대동지들과 해방된 인민들의 안전을 담보할수 있다!)

군마들이 사납게 울부짖었다. 200여명의 기병련 전사들이 삼람참 서쪽산등성이에 올라 토비들의 퇴로를 차단해버렸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삼람참은 벌써 불바다로 변하여 삼단 같은 연기를 뿜어올리고있었다. 검파에게는 놈들이 지금 한창 도망치려 하거나 아니면 이미 도망쳐버렸을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더는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진격명령을 내렸다. 전사들은 군도를 비껴들고 산개하여 산을 내린 다음 누런 풀이 깔린 사득판을 지나 삼람참을 향해 맹렬히 돌진해들어갔다. 기병들은 순식간에 짙은 연기가 타래쳐오르는 불바다속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네시간전에 비적무리들이 도망쳐버려 헛물만 켜고만것이다.

삼람참의 비참한 정경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불길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곳도 있었지만 여러군데의 불길은 한창 기

세를 올리고있었다. 짙더미며 가옥들에 모조리 불이 달려 온 마을은 말그대로 불바다에 잠겨있었다. 소와 돼지들이 불에 타죽으며 몸뚱이를 가드라 뜨리고있는가 하면 기름 튀는 소리가 뿌지직거렸고 매캐하고 비릿한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지끈 푹딱!” 하는 소리와 함께 짐채들이 와르르 내려앉기 시작하고 불꽃을 흘날리는 불길의 검은 연기속에 휘말려들며 하늘 높이 솟구쳐올랐다. 불에 데였으나 아직 채 죽지 않은 돼지와 개들이 괴상한 소리를 내지르며 처참하게 울부짖고있었다.

온 마을치고 불을 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통곡하는 사람도 없었다.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진 그들은 주먹을 부르쥐고 두눈을 홑뜨고 자기들의 사랑하는 보금자리를 삼켜버리는 무정한 불길을 분노에 찬 시선으로 지켜보고있었을뿐이었다.

말에서 뛰어내린 김파는 손을 휘두르면서 명령을 내렸다.

“불을 끄시오!”

200여명의 전사들은 서둘러 말을 매놓고 한 사람같이 인정을 모르는 사나운 불길과 싸웠다.

김파는 짙은 연기와 뜨거운 불길을 무릅쓰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피해정형을 조사하였다.

마을 한복판 허가네 마방집 문앞 광장에는 피로 얼룩진 큰 작두 하나가 놓여있었다. 작두집에는 피덩이가 엉켜붙어있었고 작두날옆에는 여러 사람의 시체가 토막토막 잘리워 어지럽게 쌓여있었다. 어떤것은 다리뿐이고 어떤것은 허리뿐이고 또 어떤것은 가슴뿐이었는데 어느 시체에서건 머리는 보이지 않았다.

작두에 잘리운 시체무지주위에는 또 20여구의 피해자들의 시체가 지저분하게 널려있었다. 그가운데는 늙은이도 있었고 어린애도 있었으며 절대다수가 아낙네들이었다. 보건대 이 수난자들은 사랑하는 혈육들을 구해내려고 작두를 향해 덮쳐들었거나 혈육을 대신해서 죽으려 했거나 아니면 원썬들과 한사코 판가름을 해보려다가 미친듯이 쏘아대는 놈들의 총탄에 맞아 쓰러진 사람들임이 틀림없었다.

그들중에는 속곳만 입은 한 젊은 아낙네가 있었는데 그는 배를 갈리워 창자가 십여결음이나 되는 곳까지 뿌려졌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두주먹을 꽉 틀어쥐고있는것을 보면 놈들과 죽기내기로 싸우다가 살해된것 같았다.

거기로부터 30보가량 떨어진 우물가에는 갓난애의 시체 하나가 있었

다. 그의 몸엔 탄알자리도 칼에 찢린 자리도 없었다. 그리고보면 산채로 태를 쳐서 죽인 모양이었다. 갓난애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났는데 애기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검파는 또 앞으로 몇걸음 걸어나가 담모퉁이를 에둘다가 차마 눈을 뜨고 볼수없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말먹이우물옆에 서있는 큰 버드나무에 쇠줄로 귀를 꿰맨 피투성이가 된 아홉 사람의 머리가 주렁이매달려있었던것이다. 이를 악물고 두눈을 부릅뜨고 무엇인가를 사납게 노려보고있는 그들의 얼굴에는 생전의 원한이 그대로 드러나있었다. 몸은 비록 죽어도 천추의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것이다.

사람들의 머리를 달아맨 그옆에는 큰 나무판자가 드리워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발이 씌여있었다.

“이것이 팔자를 고치려는 가난뱅이들의 말로다!”

검파는 어찌나 격분했던지 온몸이 쇠덩이처럼 굳어졌다. 그는 되돌아서서 작두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참혹하게 학살당한 시체들옆에는 숯불 한무지가 있고 한 늙은 할머니의 시체가 그속에 반나마 묻혀있는데 배아래쪽은 숯불과 함께 다 타버렸다. 남은것은 다만 앞가슴과 검붉은 피덩이로 얼룩진 백발이 성성한 머리뿐이었다. 놈들이 산채로 불에 던져 태워죽인것 같았다. 찬찬히 살펴보니 그옆에는 또 어린애의 시체 하나가 있었는데 벌써 불에 타서 숯덩이가 되어 마지막으로 파르스름한 연기를 피워올리고있었다. 불무지뀔으로 빠져져 나온 한쪽발의 크기로 보아 이 어린이도 대여섯살밖에 안나보이는 어린애였다.

사그라져가는 불무지옆에는 20여개의 멜채가 흩어져있었다. 온통 피칠갑을 한 그 멜채들의 피는 불기운에 말라 고기비늘처럼 터슬터슬 터갈라져있었다. 이 멜채를 가지고 비적무리들이 어떤 악행을 가했는지는 알수 없었다.

불은 꺼버렸지만 마을은 이미 재더미로 되어버렸다. 매캐한 연기와 악취 속에 깨여진 벽돌조각과 기와장들만 널려있을뿐이었다.

마을사람들의 정상은 말이 아니었다. 기절한 아낙네가 있는가 하면 얼마나 사람처럼 멍해진 사람도 있었고 개중에는 미쳐버린 사람도 있었다. 이를 악물고 폐허를 노려보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이글거리고있었다.

전사들은 수난당한 군중들의 시체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마을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다. 너무나도 몸서리쳐지는 정경이어서 마을사람들에게 그들의 혈육들과 이웃 벗들의 참혹한 죽음을 더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인민의 군대였고 학살당한 사람들은 그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 아주머니나 조카와 다름바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시체를 여간만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았다. 수난자들의 상처를 잘못 건드려 그들에게 아픔을 줄까봐 몹시 겁나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군용모포를 풀어 시체를 성의껏 감싸주었다.

전사들은 시체를 가운데 놓고 질서있게 둘러서서 수난자들을 묵묵히 애도하였다. 200여필의 군마들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듯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다.

전사들은 무쇠주먹을 쳐들고 격동되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한 사람같이 웅얼었다.

“사랑하는 동포들!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만 한발 늦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모형제들, 고이 잠드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 피값을 받아내고야말것입니다. 우리는 이 피바다에 잠긴 천추의 원한을 갚고야말겠다는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군마들도 전사들의 노한 웨침소리를 따라 사납게 울부짖었다.

서쪽거리로부터 고파가 눈물을 흘리며 걸어오고있었다. 그앞에는 왼살 남짓해보이는 로인이 비칠거리며 걷고있었다.

검파는 누님과 공작대동지들을 찾지 못해 안타까와하던 참인데 마침 고파와 로인이 그앞에 다가섰다. 고파는 손으로 눈을 가리우고 서산쪽을 가리켰다.

“203번 동지, 국현장과 공작대 동지들이 저기서 희생...”

그는 흐느끼며 더 말을 잊지 못했다. 옆에 서있던 로인도 허리를 구부정하고 발을 동동 굴렀다.

“국현장님이! 국현장님이!...”

그 역시 비분에 떨며 더 말을 잊지 못하고 손으로 서산쪽만 가리키고 있었다.

검파는 삼시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가슴속에서 무거운 납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아 절망적으로 물었다.

“어디라구?”

“서산에서...”

고파는 아직 나 어린 전사여서 어른들과 같은 리지력을 못가지고있었다. 그는 입을 열기 바쁘게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다.

검파는 머리가 터지는것처럼 웅웅거리고 온몸이 굳어져 감각을 잃었다. 그는 한동안 두눈을 멍하니 뜬채 아무 말도 못하고있다가 “갑시다! 가 봅시다!” 하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혀 자기 목소리 같지 않았다. 로인은 검파를 데리고 가면서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마구 옥설을 퍼붓고있었다.

“악귀 같은 놈쟁이들! 살인강도 같은 놈들! 그놈들이 글썽 온 마을을 도륙을 냈다니까! 어이쿠 하늘두 무심하지!”

검파는 자기가 걷고있는지 서있는지조차 감각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허탈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서산언덕에 있는 큰 소나무에 아홉명의 동지들의 시체가 매달려있었다. 여섯명은 남자고 세명은 여자였는데 모두 배가 갈라져 창자들이 땅에 쏟아져내렸고 한쪽 귀들이 온데간데 없고 칼에 찔리운 흔적만 남아있었다.

“공작대원들과 국현장이웨다.”

검파를 데리고 산등성이에 올라온 로인은 학살된 아홉명의 동지들을 감히 눈을 뜨고 쳐다볼수 없어 고개를 깃숙이고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부르짖었다.

검파는 그 참상을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머리가 터지는것 같은 환각을 느끼면서 금시 쓰러질것처럼 비척거렸다.

고파가 얼른 그를 부축하였다.

“203번 동지! 203번 동지!”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었다.

검파는 온몸의 힘을 모아 눈을 뜨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다시한번 누님의 모습을 보려는 순간 친절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귀전에 울려왔다.

“검파동무!... 만일 그의 신변에 그 어떤 불행이 닥쳤다고 하더라도 침착성을 잃어서는 안되겠소.”

떠나올 때 간절히 당부하던 류정치위원동지의 모습이 눈앞에 우렷이 떠올랐다. 그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는 마음속 비분을 분노